

Living the

LOTUS

Buddhism in Everyday Life

3
2017

VOL. 138

開祖隨感

반해 버린 사람의 한마디

이 사람이야말로, 라고 진심으로 반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한 마디 한 마디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너무 즐거워 살아갈 힘이 솟아난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는 법, 생각하는 방법까지 닮아가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불교의 교의 공부는 물론, 인도해주신 분, 지부장님, 교회장님 모습에 끌려서 법에 인도된 것은 아닐까요. 그 사람이 전해준 가르침이기 때문에 고분고분하게

들을 수 있었고, 점점 더 불교의 깊은 가르침으로 이끌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부하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상사의 제 1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만 걸어주어도 기쁘고, 실패하여 주의를 받아도 「그래, 이 사람 기대에 응답해야지」 라고 분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지지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조수감 3월 P166~167

Living the Lotus
Vol. 138 (2017年3月)

【発行】立正佼成会 国際伝道部
〒166-8537 東京都杉並区和田2-6-1 普門館5F
Tel: 03-5341-1124
Fax: 03-5341-1224
E-mail: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
@kosei-kai.or.jp
編集責任者: 水谷庄宏
編集チーフ: 金尾江利子
校閲者: 成 淑姫
編集スタッフ: 国際伝道部スタッフ

입정교성회는 1938년 개조 니와노 닛교, 협조 나가스마 묘코에 의해창립된 법화삼부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는 재가 불교 교단입니다.

가정,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살려서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는 니와노 니찌코 회장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는 물론, 각 계 사람들과 손을 잡고 국내외 여러 가지 평화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 -Buddhism in Everyday Life- (법화경에 살다- 생활속의 불교)라고 하는 타이틀에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매일 생활 속에 살려서 흙탕물에 피는 연꽃처럼 인생을 풍요롭게 그리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라는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인터넷을 통해 발신하고 있습니다.



會長 法話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 (庭野日鑽)



적극적인 힘이 솟아나다

사람들은 나이와 더불어 신체 여기저기에 이상이 생기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저도 몸에 통증과 그에 따르는 약간의 부자유스러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현실로부터 아무리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해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마음이 향하는 곳은 「괴롭다」 「아프다」 「큰일이다」 「왜 빨리 본래대로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른바 현상에 대한 부정입니다. 우리들은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마이너스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채 농가에서는 은혜로운 비가, 빨래를 말리거나 관광을 즐기는 사람에게 는 원망스러운 비가 되듯이 마음은 자기 입장에 맞추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싫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라고 불만을 가져도 현실은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싫다」 고 생각하는 그 감정에서 일단 벗어나 객관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현실을 관찰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시야를 넓혀가다 보면 마음도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통증은 똑같은 고민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헤아려줄 수 있는 체험이다。」 그리고 「치료가 되고 나면 아무런 통증 없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보다 더 『고맙게』 느끼게 될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병이나 통증은 너무 힘겹고 때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 고통과 슬픔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그 후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에너지를 비축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앞에서 「은혜로운 비」와 「원망스러운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비」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한 가지 예입니다만 사물을 다면적으로 보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 속에도 반드시 「고맙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헛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학자인 기노 가즈요시(紀野一義)씨는 「현상과 사물은 모두 진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제법실상」의 가르침을 근거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 하나하나를 실상으로서 긍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기노씨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은 모두 「긍정, 긍정,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괴로운 현상 속에서도 반드시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발견이 다가 아니라 발견을 넘어서 어떤 힘든 일도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하사품이며, 모든 현상은 긍정해야 하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단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금방 「고맙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도 당연히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듯이 사람은 제각기 깨닫는 시기와 이해 정도가 각각 다른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매사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부정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을 때는 「내가 자상함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현상을 긍정할 수 없을 때는 「고분고분함이 없는 게 아닌지」라고 하는 2가지입니다.

자기 생각 즉 아(我)로써 모든 것을 볼 때 사람은 자상함과 고분고분함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너그럽고 편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중 어느 쪽이 행복한지는 이것만 보아도 밝혀질 것입니다.

『佼成』 2017年3月号より



Living the LOTUS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Please send us your comments to: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BRANCHES 🌸